

미디어를 통해 본 코로나19 시기 한-베 갈등과 혐오의 양상*

- 바인 미(Bánh mì)** 사건과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을
중심으로

김경민*** · 정리나****

국문초록

코로나19 시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발생한 대구발(發) 다낭행 비행기 탑승객 격리 조치 사건(일명 바인 미 Bánh mì 사건)과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특히 베트남(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례이다. 본 논문은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의 일차적인 대응과 정보의 생산방식을 검토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불거진 논쟁과 가짜뉴스의 양상을 통해 혐오가 구성, 생산, 확산, 강화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질병과 외국인 혐오, 언론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외교적 갈등의 배경이 되는 코로나19 시기 베트남의 방역 조치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 본 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국립국어원의 베트남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바인 미’라고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원어의 북부식 발음에 더욱 가까운 ‘바잉 미’ 또는 남부식 발음 ‘반 미’로 표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nyaongi88@snu.ac.kr

**** 베트남 하노이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역사학과 박사과정,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 rina.hufs@gmail.com

두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과 이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대응 및 반응을 서술하였다. 5장에서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베트남(인)에 대한 혐오의 양상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다낭 바인 미 사건과 아시아나 회항 사건은 무분별하거나 악의적인 언론보도,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발(發) 가짜뉴스가 매개가 되어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혐오를 촉발하였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혐오를 분석한 결과 이는 한국(인)의 경제적 위계에 의한 우월감, 과거 양국 사이 역사로 인한 암묵적인 적대감과 민족/인종적 편견, 여성 혐오적(성차별적) 태도를 담지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코스프레’ 사례를 통해 혐오의 재생산과 확산을 예방할 방법을 살펴본다. 해당 사건은 상대 국가에 대한 문화적 몰이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목소리 그리고 대사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추가적인 ‘키보드 전쟁’과 ‘혐배’의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정부, 언론, 사회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미디어, 언론보도, 가짜뉴스, 베트남, 혐오, 바인 미 사건

I. 서론

한국과 베트남은 2022년 12월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2년 12월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였고 그 범위 역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2001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다.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022년 양국은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외 협력 관계다(외교부 2022a). 한

국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대(對) 동남아시아 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 국가로 삼았다(외교부 2022b). 2019년부터 한국의 대(對) 아세안 교역에서 베트남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왔고, 2022년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48.8%)을 차지하는 국가였다(KIEP 동향세미나 2023). 그 외에도 베트남은 투자, 인적교류,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세안 내 한국 제1의 협력 국가로 자리하였다.

이렇듯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이 꾸준한 양적, 질적 증가와 확장을 경험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 역시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전염병은 국경을 넘어 진행되어 온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물리적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발생한 몇몇 사건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양국 간 신뢰와 상호 존중, 우호적 관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이 매년 진행하는 ‘서울서베이’의 ‘외국인 조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서울)에서 지내며 가장 큰 차별을 느낀 집단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베트남인이었다(Kang 2022). 10년간 27,557명의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의 차별 경험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 시기 전후인 2019-2021년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베트남인의 비율은 20%로 모든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의 발원지라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베트남이 앞질렀음을 보여주는데, 본 논문은 이것이 코로나19 기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에 발생했던 외교적 문제와 일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논문은 한국

과 베트남 간의 관계, 특히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례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소위 ‘바인 미(Bánh mì)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언론 기사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확산 및 과열되는 양상을 겪었고 이는 양국 간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바인 미 사건’과 ‘아시아나 회항 사건’은 양국의 방역 조치와 상이한 이해관계에 의해 빚어진 단순한 외교적 마찰 또는 오해에 머물지 않는다. 본 논문의 두 저자는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기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사건 또는 사실이 일부 무분별한 언론 기사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과장, 오도, 왜곡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언론 기사의 내용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다뤄짐으로써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의 걸잡을 수 없는 유포와 (재)생산, 그리고 확산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언론 기사의 양산과 가짜뉴스의 확산은 올바른 정보에 대한 이해를 차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 대립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이상 언급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언론과 미디어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양국 간 외교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자극적인 유도성 언론 기사와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해당 사태의 기저에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우월감, 외국인 혐오와 같은 사회적 감정의 양태와 성격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현상 기술과 진단을 넘어,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정부 및 언론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를 제시

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과 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한국이 분열이나 차별, 갈등이 아닌 이해와 소통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의의

1. 전염병과 이방인혐오증(xenophobia),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

역사적으로 질병과 혐오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페스트, 흑사병, 콜레라에서부터 사스와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의 역사는 또한 혐오의 역사이기도 하다(정채연 2022; Person et al 2004). 페스트와 흑사병은 유대교, 콜레라는 인도, 사스는 중국, 메르스는 중동과 연결되는데, 이는 단순한 인과 관계를 넘어 질병의 원인을 해당 지역 또는 특정 집단에게서 찾고 부정적인 요소를 결부시켜 사회적 낙인을 찍는 ‘투사적 혐오’의 양상이다.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자연스러움과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많은 경우 혐오의 대상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누스바움 2015). 이상의 사례(史例)는 혐오의 양상과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특수한 시공간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해 왔지만, 전염병 시기에는 특히 ‘우리(us)’와 ‘그들(them)’의 경계를 구분하고 차이를 강조하며, 사회 내 소수자들을 특징짓고 위계 관계를 설정하는 이방인혐오증(xenophobia)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해당 질병을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라고 명명하며 미국 내 반중, 혐중 정서와 차별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고, 나아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 또는 동양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호명은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중국인과 동양, 아시아를 질병과 연결시킴으로써 외국인 혐오를 촉발하는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Jack-Davids 2020; 김진리 2020: 43에서 재인용.) 또한 김진리(2020)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프랑스에서 축소 또는 비가시화되어 왔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이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김진리 2020: 38). 그는 프랑스 사회가 동양인을 ‘더럽고 불결한’ 인종으로 낙인찍고, 이러한 이미지가 재생산, 확산하는 과정에서 황화론(Yellow Peril)이 새롭게 재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혐오 표현 또는 혐오 담론은 전염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에서 혐오가 개인적, 개별적 심리 상태나 반응의 측면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현상이자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손희정(2018)에 따르면 초기 혐오는 ‘혐오 시설’과 같이 물질적 함의를 담고 있었으나 2010년대 초반부터는 일간 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hate speech)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혐오는 ‘소수자’, ‘여성’, ‘장애인’, ‘동성애’ 등과 연결됨으로써 그 대상이 ‘시설’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한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여성 혐오(misogyny) 담론 역시 질병이나 전염병과는 연관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전염병과 혐오가 함께 등장한 것은 코로나19 시기부터이다. 최근 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과 혐오 및 차별적 발언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혐오 담론은 사회 내 주변적이고 이질적인 집단 위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지역혐오(대구/신천지), 인종차별(중국인), 젠더차별(성소수자)로 특징지어진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렇듯 관련 선행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한국 사회 내에서 특정 국가와 인종에 대한 ‘외국인 혐오’의 형성과 증가에 주목하였다(장려은 2021; 전해진 2020; 조태구 2020). 특히 김수경(2020)과 이혜수·김세현(2021)은 외국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국내에서 기존 전염병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며,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 지형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혐오 관련 연구는 한국 내 중국인 혐오 현상에 집중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특정 내국인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

본 논문은 질병과 혐오의 상관관계, 사물의 본질과는 무관한 ‘투사적 혐오’의 특징, 코로나19 시기 증폭된 외국인 혐오와 같은 기존의 논의를 이어받는 한편, 베트남이라는 국경 바깥에 있는 ‘외국’, ‘타자’, ‘이방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혐오의 팬데믹’이 국경을 넘어 전개된 방식에 주목한다. 코로나19 시기 한-베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외교적 오해와 갈등은 베트남과 베트남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강화하고 불신과 반감으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진 논쟁을 통해 혐오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코로나19 시기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외국인 혐오’가 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등 현상과 연결되는 방식에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언론 및 매체가 수행한 역할과 중요성을 짚어내고자 한다.

2. 코로나19 시기 혐오의 통로로서 언론과 가짜뉴스

코로나19는 ‘연결’과 ‘단절’에 대한 역설을 모두에게 던진 초유의 사태였다.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이 병을 막을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바로 물리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의심치 않던 ‘이주의 시대(카슬, 밀러 2013)’는 국경이 닫히면서 막을 내리고, 사람과 사물의 이동은 유례없는 단절을 경험하며 ‘장벽의 시대(마샬 2020)’를 맞이했다. 국경 간, 사람 간 세워진 장벽은 개인의 물리적 고립을 초래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세계의 의존을 낳았다. 또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팬데믹에 대한 ‘무지’와 ‘비가시성’, 그리고 ‘불확실성’은 더 많은, 정확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켰고 이는 언론과 같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로의 의존으로 이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미디어, 특히 언론은 사회적 담론의 방향성과 성격, 사물과 현상에 대한 대중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혐오의 팬데믹’을 형성하고,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진리 2020; WHO et al. 2020).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미비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대중은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여겨지는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 전염병과 관련한 정보 추구의 행위가 급증하게 된다.

코로나19 시기 한국 역시 언론에 대한 의존도는 높게 나타났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약 1,000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코로나19 정보획득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1, 2위는 방송뉴스(49.8%)와 포털사이트(42.4%)였다(표시영·정지영 2021: 316). 한국언론진흥재단(2020)의 조사에서도 한국인이 언론사를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은 전체 6개국(한국,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아르

헨티나) 중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기사의 경우 접근성이 높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박기목 2015; 손달임 2020; 주재원 2014). 문제는 온라인 기사에서 ‘혐오 표현’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18년 문체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되는 통로는 온라인이며, 특히 ‘뉴스 기사’를 통해 혐오 표현을 접한 것은 거의 절반(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시영·정지영 2021: 288). 그리고 이러한 ‘혐오의 팬데믹’은 뉴스 기사의 형태로 생산 및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통해 더욱 급속하게 확산한다¹⁾.

정재선(2021)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확증편향과 집단극화라는 두 특징을 지닌다. 확증편향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 체계와 가치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집단극화는 선택된 정보가 동일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체계 안에서 반복, 확산, 재생산됨으로써 집단의 동질성과 결속을 강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는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일종의 ‘사실’ 또는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 심화되어 결국 편파적이고 왜곡된 사고의 형성에까지 기여한다(정재선 2021: 89). 특히 코로나19 시기 가짜뉴스는 유사 집단 내의 친목과 연대를 추구하면서 이질적인 집단과의 분리 및 차별 행위를 촉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가짜뉴스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되며, 특정 여론 형성, 대중의 지지 획득, 반대 정치 세력 공격 등의 정치적 목적은 최근의 가짜뉴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정두흠·박지혜 2021: 225). 클릭으로 인한 광고 노출과 조회 수를

1) 특히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배포되는 정보(disinformation)로서 공중이 사실로 혼동할 수 있게 실제처럼 조작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뉴스 기사로 정의할 수 있다(Allcott and Gentzkow 2017; 정재선 2021: 88에서 재인용)

통해 수익을 올리는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콘텐츠는 이용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표현 수위가 높은 언어 사용과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혐오를 도구로 활용한다. 동시에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타 집단에 대한 ‘투사적 혐오’로 분출하는 행위는 혐오 자체를 강화하고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다²⁾.

이상 살펴본 선행 연구는 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안과 혐오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국경 바깥에서 발생한 외교적 갈등이나 혐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양국 간 물리적 이동과 연결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실 확인과 규명이 어려워지게 되고, 언론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며, 그 효과가 사회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과 혐오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베트남은 코로나19 시기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양산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 한-베 갈등과 혐오를 다룬 연구는 강진구(2021)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는 코로나19 초기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며, 언론 기사 자체가 아닌 기사의 댓글 분석을 진행했다. 저자는 언론 기사의 댓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반응을 분석했지만, 언론의 역할과 효과를 다루지 않았고 그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외교 파트너인 베트남에 주목하며, 코로나19 시기 한-베 양국 사이에 발생한 외교적 사안과 관련하여

2) 코로나19 시기의 한국 정치 지형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정쟁에 이용함으로써 ‘위험의 정치화’를 초래하기도 했다(장덕진 2020).

여 언론의 일차적인 대응과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불거진 논쟁과 가짜뉴스의 양산을 통해 혐오가 구성, 생산, 강화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베트남에 대한 혐오가 지닌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오의 지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한-베 양국 간에 발생한 사례를 통해 언론과 미디어에서 혐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제안할 것이다.

Ⅲ. 코로나19 시기 한-베 갈등 상황³⁾

1.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을 시작점으로 본다. 중국은 1월 9일 당시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이 질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1월 7일 보건부 산하 베트남 공중 보건 비상사건 대응센터(PHEOC · Vietnam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 Center)가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과 예방 활동을 검토하기

3) 본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정식 지국설립 및 특파원 파견을 허가받은 한국 언론사의 특파원이다. 본인은 사건 당시 베트남 보건·외교당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보도자료와 현황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취재 및 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다. 이하 3, 4장의 내용은 이러한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위해 베트남 관계부처와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Trần Nguyễn 2020). 1월 23일, 중국 우한시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한 60대 중국 남성과 베트남에서 그를 만난 20대 남성(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베트남도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되었다. 이어 1월 30일 Tết(음력설)을 맞아 중국에서 핑닌(Quảng Ninh) 국경을 통해 들어온 베트남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에 베트남은 1월 30일 총리령 170호를 공포, 부 득 담(Vũ Đức Đàm) 베트남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지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국가 주도 방역에 나섰다. 베트남은 국가지도위원회 출범 다음 날 바로 전국 45개 병원 규모의 긴급 대응팀을 꾸렸고 위원회 소속 국영 매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홍보에 나섰다.

2021년 9월 말 ‘포인트 방역’⁴⁾이란 개념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기 전까지 베트남 방역의 특징으로는 철저한 ‘물리적 봉쇄’를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은 2020년 2월 1일 중국과 베트남 간 모든 항공편의 운항 허가를 임시 중단한 데 이어 2월 4~5일 중국과 베트남 간 육로 교통수단인 기차 운행도 중단하며 베트남과 중국을 잇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였다. 2월 13일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1명이 빈푹(Vĩnh Phúc)성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선로이(Son Lôi) 마을에서 나오자 당국은 공안과 의료인력을 투입해 선로이 마을을 봉쇄하기로 결정하였다.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20일간 봉쇄한 이 조치는 중국 외 지역의 첫 봉쇄 사례로 베트남의 강경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예고편이었다.

4) 베트남은 기존의 ‘제로(0) 코로나’ 방역 기조를 2021년 9월 26일을 기점으로 “가능한 최소한, 가장 좁은 범위로 봉쇄해 코로나19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라는 집중적 포인트 방역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한국은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월 16일까지 총 30명의 확진자 발생에 그쳤고, 이마저도 하루 한두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확진자의 동선 정보 등 정보공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전국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음날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였다. 2월 18일까지 30명에 불과하던 확진자는 불과 5일만인 23일엔 60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도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하였다. 2월 23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2개 국가였다.

베트남도 2월 23일 15시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입국하거나 한국을 경유한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의료 신고서(검역 서류)를 작성토록 하였다. 호찌민시, 다낭 등 일부 도시에서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대구에서 온 한국인들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격리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구발(發) 다낭행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2월 24일에는 양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직항 노선 운항을 대폭 감축하는 추세였으나 베트남 당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운항 중단 조치는 없었다. 다만 베트남 뱀부항공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26일부터 한국을 오가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 다낭 한국인 승객 격리 사건과 아시아나 회항 사건

일명 ‘바인 미(Bánh mì) 사건’으로도 불리며 양국 국민 간 감정 문제로 불거진 사건인 대구발(發) 다낭행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 사건은 2020년 2월 24일 발생하였다. 이날 비엠텐의 대구발 다낭행

비행기는 대구에서 오전 6시 52분 이륙해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현지시간)께 다낭 국제공항에 착륙하였다. 다낭시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다낭시 보건국에 대구에서 다낭으로 향하고 있는 해당 항공편 승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팀을 꾸릴 것을 지시하였다. 다낭시 보건국은 전염병 지역인 대구에서 온 입국자들을 받기 위해 다낭시 질병통제센터(CDC)의 검역부대와 구급차·경찰차·29인승과 45인승 차량 3대·수화물 운반 트럭 등을 국제공항으로 파견하였다. 해당 항공편은 당시 대구에서 다낭으로 들어온 마지막 비행기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승객 20명·베트남 승객 58명·태국인 승객 2명과 승무원 10명은 다낭 도착 즉시 격리되었다. 다낭시는 열이 나던 베트남인 승객 1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57명의 베트남 승객을 동싸인(Đông Xanh) 동원예비군 훈련센터에 격리하였다. 한국 승객들은 폐(肺)병원에 마련된 특수 구역에 격리하였다.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격리조치에 일부 승객이 반발하였고, 한국인 승객들이 격리되자 한국 외교부가 베트남에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다음날인 25일 오후 격리됐던 한국인 승객들을 귀국시키는 데 동의해 격리를 받아들이고 다낭에 남길 원한 교민 2명을 제외한 18명의 승객은 같은 날 밤 인천행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였다. 2월 24일 대구발 다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격리되는 사건 이후 베트남은 다음날인 25일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했거나 14일 이내 체류한 모든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월 28일, 29일 자정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2월 29일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 시행과 함께 아시아나의 한국발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인천에서 출발했으나 이륙

후 40분이 지난 뒤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다. 해당 항공편이 인천에서 출발한 이후 베트남 당국이 하노이 노이바이(Nội Bài) 공항 대신 쩡닌(Quảng Ninh)성 번돈(Vân Đồn)공항으로 착륙할 것을 통보해서였다. 아시아나항공은 번돈공항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 상공에서 긴급히 회항했고 결항 조치하였다. 공항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 활주로 정보 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회 착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서 베트남 교통부는 26일 유관 부처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관리(방역) 강화와 관련한 긴급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교통부는 민간항공국에 한국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항공편을 북부 쩡닌(Quảng Ninh)성 번돈공항, 중부 빈딘(Bình Định)성 푸깟(Phù Cát)공항, 남부 깐터(Cần Thơ)공항으로 우회 착륙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D. Ngọc 2020). 그러나 베트남 항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현지시간 29일 오전 8시 15분(한국시간 오전 10시 15분)부터 시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같은 날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에야 각 항공사에 전화로 우선 통보하였다. 이미 항공편이 이륙한 이후 통보된 것이다.

이날 오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한 후, 다시 노이바이 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워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당 항공편은 결국 빈 비행기를 띄우는 ‘페리 운항’을 조건으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뒤 승객 151명을 태워 돌아왔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과 호치민 시 떤선녓 공항의 여객기 착륙이 금지돼 자칫 발이 묶일 뻔했던 승객들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페리 운항으로 보낸 항공기를 이용해 286명 전원이 귀국하였다.

다음날인 3월 1일 한국 외교부는 주한베트남 대사를 청사로 불러 긴급 회항 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2일 베트남 항공 당국에 항의서한을

보내 “비행기가 이미 떠서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생지 공항(취항한 적이 없는 생소한 지역의 공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라며 “한국발 여객기만 착륙을 막고 다른 항공사의 여객기는 다 정상 착륙시킨 것은 차별”이라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하였다. 베트남은 3월 1일부터 한국발 항공기를 북부의 경우 팜닌성 번돈공항으로, 남부의 경우 켄터공항으로 착륙하도록 하였다.

IV. 언론 및 미디어의 반응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가운데 외교라인을 통한 당부와 항의를 넘어서 양국 국민(네티즌)간 갈등 양상이 나타난 것은 베트남이 유일하다. 대구·경북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승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베트남 하나뿐만이 아니었음에도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진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란 불씨와 상대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존중을 결여한 채 자극적인 내용을 부각시킨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구·경북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인 가운데 벌어진 한국인 승객 격리사건에는 양국 언론의 불안감 조성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베트남 최대 온라인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사건 발생 당시 “한국 승객들이 격리구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승객 20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폐병원의 특별 격리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는 24일 오후 5시 한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인 일행이 선짜(Son Trà)에 있는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나 해당 호텔이 투숙을 거부했다는 내

용, 다낭시 당국이 “한국인 승객들의 숙박비와 식비를 부담해” 이들을 4성급 호텔로 옮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Nguyễn Đông 2020).

본 논문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은 당시 베트남 언론의 기사를 재차 확인하였는데 해당 기사는 이후 시설격리 준비 등의 문제로 한국인들이 4성 호텔로 가지 않고 폐병원에 머무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업데이트되었다. 그사이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인 승객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낭시 당국이 내린 격리 결정에 불응하고 격리를 원치 않는 집단, 고급호텔과 편안한 대우를 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란 인식이 퍼졌다. 또한 한국인들이 먼저 고급호텔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미 병원 대신 4성 호텔로 가 머물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지며 베트남 내 여론은 더욱 악화하였다. 격리가 확정되지 않고 마찰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격리를 거부할 거면 즉시 베트남을 떠나라”는 해시태그(hashtag)가 등장하며 한국인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확산하였다(정리나 2020a).

한편 한국에서도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들이 격리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와 아시아투데이의 베트남(하노이) 특파원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하였고, 이후 한국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외교부가 한국민을 격리한 베트남에 항의했다는 발표를 기반으로 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때 당시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의 주요 포털 뉴스 댓글들은 베트남의 방역 조치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었다. ‘바인 미 사건’을 촉발한 YTN의 “[단독] ‘다낭 격리’ 교민 20명...자물쇠로 잠근 병동서 감금생활” 25일 저녁 보도도 보도 당시 댓글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정부, 신천지 발 확산이 시작된 대구에서 다낭을 찾은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비판

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25일 저녁에 이뤄진 YTN의 보도 내용이 보도 직후 베트남에 전해지며 문제가 됐다. 해당 보도는 한국인 승객들이 격리된 병동의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루 세끼 음식은 충분치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침에 빵 쪄가리(조각) 몇 개 주네요”라는 승객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안운학 2020).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이자 상징으로까지 여겨지는 바인 미(Bánh Mi)를 ‘빵 쪄가리’로 칭한 것이 보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베트남 내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ApologizeToVietNam (베트남에 사과하라)’ · ‘#20KoreansStopLying (20명의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멈춰라)’란 해시태그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베트남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당시 이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게시물 수는 70~80만 건에 이르렀다<그림 1>.

<그림 1> 베트남에 사과하라 운동 관련 포스팅



출처: 트위터 캡처 갈무리(@hanajuko, @Bongem22)

당시 베트남 네티즌들은 “코로나19 전에는 바인 미를 맛있는 음식이라 부르더니 이젠 형편없고 나쁜 음식이라 부른다”, “오스트레일

리아 총리는 1만동(약 500원)짜리 바인 미를 먹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먹고 칭찬한 바인 미다”, “바인 미조차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여줘도 (개처럼) 짓어 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중국에 대한 불안감과 역사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이어진 반중 감정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한류·삼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한국이 ‘바인 미’로 인해 중국보다도 더한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바인 미’로 인해 한국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베트남

네티즌이 ‘사우스 코로나’라며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바이러스 모양으로 바꿔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그림 2>. 이 같은 이미지가 처음 올라온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2,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을 비난하는 베트남 네티즌들의 욕설 댓글도 다수였으나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알려지며 찾아온 한국 네티즌들과의 싸움이 시작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한국이 먼저 바

<그림 2> 베트남 네티즌이 올린 ‘사우스 코로나’ 포스팅



출처: 페이스북 캡처 갈무리(Hoang Bach Nguyen)

인 미로 국가(베트남)와 민족의 자부심을 건드렸다”는 이유였고, 한국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태극기를 모욕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양국 네티즌들 모두 ‘국가’ 내지는 ‘민족’을 욕보였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이다.

양국 네티즌들의 소위 ‘키보드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 언론사의 베트남 현지 특파원들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당 문제를 보도한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은 가짜뉴스와 YTN 보도로 인해 불거진 문제와 베트남 네티즌 및 현지 교민들의 반응을 짚었다. 또한 다낭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다낭시 관계자를 취재해 마찰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양측이 한국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력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가짜뉴스에 한국-베트남 간 협력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과 “빠르게 퍼진 가짜뉴스로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자칫 베트남 내 반한(反韓) 감정이 삼시간에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정리나 2020b).

해당 보도 이후 베트남 주재 한국 특파원단 내부에서도 문제의식과 현 상황에 대한 베트남 측의 반응을 공유하며 올바른 방향의 보도에 힘쓰고자 하는 내부 노력이 이어졌다. 한국일보 베트남 특파원 역시 다낭시 인민위원장이 시내 한인 식당에서 한식 도시락을 공수해 지급하고 직접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보도하였다(정재호 2020a). 그러나 일부 인터넷 매체가 “코로나19는 ‘사우스 코로나’” 한국 조롱하는 베트남 사람들”과 같은 기사에서 일부 베트남 네티즌들이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바이러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꾼 이미지를 올렸으며 “명백한 대한민국 조롱 행위로 보인다”, “댓글 대부분이 ‘사우스 코로나’라는 말에 동의하며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라 전하며 갈등을 부채질하기도 하였다(전준강 2020a). 또한 한국의 무지와 몰이해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해시태그 운동은 한국에 대한 일부 베트남인의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 더 나아가서는 ‘혐한’이라는 말로 기사화되고, 침소봉대됨으로써 마치 모든 베트남인과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대변하는 듯한 효과를 초래하였다(이유지 2020; 이한열 2020; 정재호 2020a). 해당 기사에는 왜 베트남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전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녔거나 같은 베트남인을 비난하는 네티즌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기사는 다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베트남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였다.

베트남에선 전례 없던 ‘혐한’이란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문제를 불러일으킨 YTN의 보도는 현지 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차 취재-검증이 결여된 채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된 보도였다. 해당 보도는 자물쇠로 굳게 잠긴 병동의 모습과 함께 ‘감금’, ‘빵 쪄가리’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처럼 전자 도어락 등이 없어 자물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지 상황과 아침이나 간단한 끼니로 즐겨 먹는 ‘바인 미’와 같은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보도였다.

또한 ‘빵 쪄가리’로 지칭된 바인 미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에 따르면 당시 병원 책임자였던 레 타인 폭 원장이 자신은 1만2000 동(약 600원)짜리 바인 미를 먹으며 한국민들에게는 특별히 신경 써 2만 동(약 1000원)짜리 특 바인 미를 준비해줬다는 사실 역시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터 다낭시 인민위원장이 귀국을 앞둔 한국 승객들에게 3~5만 동(약 1500~2500원) 정도인 한 끼 식사비의 몇 배에 달하는 20만동(약 1만원) 상당의 특식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알려지지 않았다(정리나 2020c). 사건이 발생했던 2월 말 3월 초 다낭시 공보 담당자는 저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베트남 쪽으로 직접 연락해 확인한 기자는 아시아투데이 기자 한 명뿐이었던 것으

로 안다. 베트남 측이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고 ‘감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를 직접 묻는 연락조차 없었던 것인지 의아했다”고 말했다⁵⁾. 사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베트남 측을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나 반론 청취 등의 기본적인 취재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YTN은 이후 3월 9일 ‘베트남 다낭 한국인 감금’과 같은 과장된 보도를 내부 공론화 기구인 공정방송위원회에 올려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언론사는 유튜브 영상에 “격리 상황과 제공 음식에 대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감정적인 불만과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베트남 병원에 격리된 개인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던 것일 뿐 베트남의 고유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을 댓글로 공지하였다. 또한 “추후 YTN은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터뷰이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달 방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손가영 2020).

‘바인 미’ 사건 이후 아시아나 회항 사건이 발생하였고 베트남 당국은 이후 한국발 비행기는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호치민시 떼선녓 공항 대신 번돈공항과 켄터공항으로 착륙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시설 등지에 격리된 건에 대하여서도 “보복 조치는 절대 아니다”라 일축하며 “베트남의 현재 의료시스템으로는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면 과부하가 걸리고 300명이 넘어가게 될 경우 붕괴할 수도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입국을 막는 한이 있더라도 근원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⁶⁾ 이 같은 조치로 일부 언론은 “베트남 하노이·호치

5) 다낭시 인민위원회 관계자 전화 인터뷰(2020년 3월 4일).

민·다낭 공항, 여름까지 ‘한국인 오지마!’”(정현영 2020), “한국인 오지마…日·베트남·中, 해외여행 톱3도 ‘빚장’”(유승목 2020)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같은 경우는 엄연히 기자 개인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퍼져거나, 비슷한 논조의 유튜브 시사 이슈 동영상의 소재로 사용되며 ‘혐배’를 재생산하거나 강화하였다.

유튜브에서 재생산·강화된 ‘혐배’는 빠르게 퍼져나가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양국 관계와 국민들의 일상에까지 ‘가짜뉴스’로 침투하였다. 한국일보 특파원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간 유튜브에서 베트남 관련 가짜뉴스가 200여 개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일보 특파원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베트남 관련 가짜뉴스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각각 베트남의 한국발 항공기 회항 조치 직후인 3월 초·중순, 베트남 방역 키트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된 3월 말, 베트남의 삼성 퇴출 운동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4월 중순이다(정재호 2020b).

이 같은 가짜뉴스는 점점 더 교묘해져 이후에는 기성 방송 매체들의 뉴스 보도인 것 같은 형식을 취하거나 급기야 TTS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인 양 포장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사실관계(팩트) 왜곡의 정도도 심해지며 급기야 베트남이 한국 대사관을 공격하였다거나, 베트남 국가 주석이 한국 때문에 사퇴하는 등 붕괴돼 “한국이 아시아 최초 베트남 영토 통치권을 획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상이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상들에는 이를 사실로 믿고 베트남을 혐오하는 발언이 담긴 댓글들도 수십, 수백 개가 등록되었다.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상의 공론장이자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댓글을 통해 개인은 뉴스의

6)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 인터뷰(2020년 3월 5일)

사회적 의미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며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조운용 외 2016: 166). 따라서 언론과 가짜뉴스, 댓글의 상관관계는 혐오의 생산과 재생산, 확산 및 순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V. 언론과 미디어에 나타난 혐오의 양상

초기 양국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에서의 ‘키보드 전쟁’은 한국과 베트남 양쪽 모두에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베트남의 경우 ‘혐한’의 소지가 있는 기사나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당 사건은 ‘혐베’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후 베트남 및 베트남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혹은 거짓 정보가 담긴 게시물 및 콘텐츠가 증가하게 된다.

당시 국경 밖의 공간인 베트남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일부의 주장을 일반화시키는 편향된 기사를 대량 보도 혹은 여과 없이 양산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초기에는 여러 의견이 뒤엉키며 갑론을박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언론보도의 1차 자료는 각종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유포되고 재생산됨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불쾌함과 반감을 증폭시켰고 뒤이어 과장되고 노골적인 콘텐츠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혐오의 불길을 부추겼다. 현지에서의 정확한 맥락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에 비하면 미약했고, 잘못된 시정과 여론의 방향을 돌리고자 할 때는 이미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후였다.

이렇듯 한-베 인터넷 공방은 초기에는 쌍방 간에 이루어지며 혐오를 통해 양국 간의 경계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촉발하는 유사한 양상을 띠었으나, 한국의 경우 혐오의 농도가 더욱 짙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을 요구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하였다.⁷⁾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혐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의 결여와 현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가 유사 언론이나 각종 사이트, 커뮤니티 공간에서 가공과 재가공, 조작과 과장, 날조와 변형을 겪는 과정을 살펴본다. 동시에 소위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이 베트남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난 혐오의 유형 및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VI. 양국 간 경제적 위기에 따른 우월감과 멸시

“코로나 사태 때 ‘코리아’ 무시하더니 ‘경제 폭망’하자 한국 기업에 매달리는 베트남 근황”, “코로나로 한국 조롱하더니 이재용의 삼성전자에게 손절 당한 베트남 현실”(유진선 2020; 전준강 2020b)과 같은 제목의 유사 언론의 보도는 상호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관계를 위계적으로 바꿔놓고,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베트남이 국가적 차원에서 취한 일시적 조치나 일부 베트남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오히려 이를

7) 논쟁 당시 베트남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한 공동 저자 중 한 명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언론의 보도가 한국에 비해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대 국가를 공식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난 또는 비방할 수 있는 보도가 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베트남 주요 언론의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대부분 댓글을 등록해도 즉시 반영(게재)되기보다 심의를 거쳐서 표출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열을 당한다는 점도 한국과 차이가 있다.

또 다른 혐오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정통 언론에 속하는 신문사에서도 “‘부탁해도 부족한데’ 베트남 무모한 결정 삼성 ‘기가 막혀’”, “베트남? 차라리... 한국사람들 ‘확바뀐’ 해외여행지 플랜”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0a, 2020b)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러한 기사들은 2020년 한국인 코로나 입국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나 관광객의 감소 등의 문제를 객관적인 태도로 보도하기보다 오히려 양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 제목을 사용하여 혐오를 부추긴 상황을 드러낸다. 해당 논리에 따르면 경제적 위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베트남은 한국에 ‘부탁’을 하는 입장을 취하기보다 도리어 한국에 등을 돌렸기에 무례하며, 입국 금지로 인해 발생한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감소는 마치 베트남의 배신에 대해 한국인이 취하는 마땅한 ‘보복’으로 오도된다.

베트남에 삼성, LG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과 그 협력 업체 및 중소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등에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약 9,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수가 많다고 하여 한국이 베트남을 먹여 살리고 있다거나 한국 기업이 철수한다면 베트남 경제는 곧바로 무너질 것이라는 식으로 비약하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수직적인 위계로 바꿔놓는다. 즉, 베트남을 ‘경제적 동반자’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시혜를 베풀고 있는 ‘온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양국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 협력 관계를 일종의 갑-을 관계로 치환하고 양국 간 존재하는 선진국과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경제적 위계가 우월함과 열등함을 구분하는 가치판단의 위계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 한국 기업을 불매한다는 일

부 베트남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 언론의 과장된 기사가 보도되었고 관련 기사가 또다시 재유포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세한 감정과 태도는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너희들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와 같은 배신감과 패essim에 상응하는 것이다.

- ① 베트남 사람들 믿지 마세요... 진짜 뒤통수 치는데 최고입니다..⁸⁾
일부만 그런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중략)
그런 베트남 애들은 저기 소말리아나 그런데 몇 년동안 보내 버리면 정신차리나 모르겠네요
베트남 사람들 진짜 이제 도와주지 맙시다.. (네이버 베트남호치민일상탈출 카페 2020/04/05)
- ② 저도 얼마전까지 베트남에 있었고 베트남을 좋게 생각한사람으로써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네요~ 태국기까지 훼손하면서 한국인을 우습게 생각했구나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중략) 계속되는 혐의를 권리인양 착각하는 미개한 베트남인들은 이제는 알려줘야 합니다~한국인은 그런 호구가 아니라는걸...(네이버 베트남호치민일상탈출 카페 2020/04/05)
- ③ 먹여 살려놨더니? 슬슬 기어오르는구나...
그럼 혼나야겠지?
앞으로 절대 베트남 여행 갈 일 없다.
쫄쫄 굶겨봐야 다시 허리 숙일 미개한 별레 같으니라고(보배드림 2020/04/29)

한국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베트남 네티즌이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과장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강조한 보도들은 한국인에게 반감과 불쾌함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

8) 원문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담아내고자 추가적인 교정 없이 작성하였다.

기사를 재유포한 인터넷상의 글과 영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반응 역시 언론과 유사한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혐오의 내용은 암묵적으로 베트남을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 한국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을 은혜를 입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한국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무례한 집단으로 폄하하는 성격을 지닌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서도 한국인 격리와 관련한 YTN 보도가 공유되는 가운데 베트남과 베트남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의 글이 난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가생이닷컴 2020/02/27). 이 과정에서 “후진국”, “개도국”, “삼성 덕에 밥먹고 사는 안하무인”, “선진화된 나라가 아니라 미숙” 등 양국에 경제적 격차에 기반한 차별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와 같은 혐오의 양상은 베트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제적 위계가 우월-열등, 선진-미개의 기준이 되어 한국인에게 ‘경제적 우월감’을 심어주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인의 우월 의식은 베트남인 전체와 그들의 문화 역시 후진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연결시키며 지배적이고 온정적인 시선으로 베트남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정형화’, ‘대상화’,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개도국 혹은 저발전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적 태도는 특히 한국과 인접하고 교류가 잦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임양준 2012; 정현숙 2004).

코로나19 시기 베트남이 취한 강력한 조치나 일부 베트남인 네티즌의 공격적인 반응은 기존에 베트남을 향해 있던 우월감이 손상된 것으로 여기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나아가 손상된 우월감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혐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혐오의 사슬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러한 자기방어의 태도는 강진구(2021)의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베트남보다 정치, 경제, 문

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 손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우월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월감’이 발생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모두 베트남을 위해 베풀고 있는 ‘옳은 일’ 혹은 ‘좋은 일’로 포장해버림으로써 일부 기업의 노동력 착취 문제, 환경 관련 이슈, 성차별 등의 중요한 사안들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양국 간 경제 수준의 격차는 지금의 한-베 교역의 시작과 발전, 확장을 가능하게 한 물리적 환경이며, 한국 역시 베트남에 대한 교역과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는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 맺음의 양상과 맥락,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소거해버림으로써 단일하고 편협한 시각만을 남겨놓는 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1. 민족주의/자민족 중심주의

‘경제적 우월감’과 함께 짝을 이루는 혐오의 양상은 바로 ‘민족주의’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이다. 양국 간 발생한 외교적 갈등이 국가 간의 입장을 대표하고 또 그것이 각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입장이나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뉴스 보도나 기사를 쓸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경으로 분리된 국가의 정체성이 매우 쉽게 ‘민족’이라는 언어로 귀결될 수 있고, 그것이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민족성’이라는 것과 얽히게 됨으로써 가치판단의 요소이자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민족성’을 언급하는 한국인의 반응 또는 태도는 매우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는 소재인데, 그 혐오의 방식이 지극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혐배 콘텐츠를 생산하는 개인의 수는 일부다. 그러나 이들이 몇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생산자일 경우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가 그대로 공유되거나 재가공되어 또 다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로 퍼지게 됨으로써 혐오의 확산은 더욱 견잡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베트남의 민족성에 대한 폄하와 비난의 내용을 담은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시사멘터리 채널의 “베트남이 한국에 키트를 달라며 하는 놀라운 행동”,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HI! MR.SUNG 채널의 “알수록 요상한 베트남 섬짓한 이유, 이정도 일 줄은 흡사 중국 일본 섞어 놓은 듯”, 구독자 45만 명을 보유한 소위 ‘국뽕’ 채널 진포터의 “첫 지하철 개통에 난리난 베트남이 한국 지하철 영상보고 현실부정하는 이유” 등 제목의 영상은 각각 1만 1천 개, 5백 개, 1천 9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으며 대부분이 베트남 민족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① 베트남속담에 이런말이 있다.
‘은혜는 잊어도 원수는 갚아라’ 베트남 민족성을 보여주는 속담이라 생각함.(유튜브 시사멘터리 2020/03/23)
- ② 베트남 국민성이 원래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은혜는 안 갚고 약간의 손해라도보면 철저하게 되갚아야 하죠. 별로 신의를 두고 거래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유튜브 HI! MR.SUNG 2020/04/02)
- ③ 베트남 민족의 특성을 모르시는 것 갓아 몇자 적어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몇년 살다온 사람으로써 베트남민족성은 최악입니다. 거지근성에 중국 못지않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이죠 베트남 사람도 베트남 사람을 못믿습니다. 서로에 씨족끼리 뭉치며 씨족끼리만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들은 한

참 후진국이고 절대 같이 상종하지 못할 국민성이라는 걸 강조하고싶네요.(유튜브 진포터 2021/11/17)

민족성 혹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혐오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첫 번째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나 이해보다는 설명이 필요 없는 본질주의로 모든 문제를 환원해버린다는 특징이 있다. 바인 미 사건과 아시아나 회항 사건은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독단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국과 상이한 의료체계와 정치 시스템을 지닌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객관적인 결정이었다. 이러한 이해는 베트남이 현재 처한 상황이 정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맥락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존재 자체에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가해지는 멸시와 비하는 대중에 의해 더욱 손쉽게 채택되고, 이는 우월감과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스스로를 재생산하게 된다. 이렇듯 민족성과 민족주의에 기반한 해석은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베트남인을 일반화, 단순화, 타자화함으로써 그들은 원래 그런 존재, 즉 혐오해도 되는 존재로 위치 짓고 만든다⁹⁾.

이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혐오가 지닌 두 번째 속성은 ‘투사적 혐오’의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혐오의 양상에서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혐오의 기반이 되는 민족적 본질주의가 실제 해당 집단의 본질과는 무관하므로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노이행 한국인 50여 명 공항에 격리...‘없던

9)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지향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역시 베트남 관련 민족/인종 혐오 표현으로 도배되어 있다. “베트남 똥남이는 태생부터 중국의 찌꺼기 잡종 민족, 1000년 중국의 속국 언어도 중국어과 사실상 짱개 마이너버전 그러면서 짱개는 싫고 어문 한국도 싫어하는 이상한 민족, 공산당에 영원히 수탈당할 명칭하면서 가난한 민족”(디시인사이드 2022/10/25)

병도 걸리겠다”)(오연서 2020)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나 ‘동남아 혐오’를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 ‘뉴스 7시’¹⁰⁾의 “전형적인 후진국스러운 문화”, “동남아의 더러운 민족성” 등 언론의 형태를 띤 콘텐츠들은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민족성을 ‘더러움’, ‘불결함’, ‘비위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인과 관련된 혐오의 양상에서 한국 문화를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으로, 중국 문화를 더럽고 지저분하며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김종수 2016).

이러한 부작용으로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댓글 창에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민족”, “더러운 바퀴벌레, 너희같은 하등 동물 이랑 상종 안한다”, “냄새나는 깡둥이” 등의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보배드림 2020/04/09). 이러한 반응들은 ‘게으름’, ‘더러운’, ‘냄새나는’, ‘기생충’ 등의 질병 혹은 오염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집단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채택하고 이를 원초적 거부감 혹은 적대감과 연결함으로써 ‘투사적 혐오’를 생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추가로 동남아인 전체를 비하하는 ‘똥남아’, 베트남을 일컫는 ‘똥트남’, 베트남과 바퀴벌레를 결합한 ‘베퀴벌레’ 등의 혐오 표현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인종 또는 민족이라는 경계선으로 구분 짓고 위계를 설정하며 베트남인을 한국인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시킨다. 또한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마땅히 경계선 밖으로 내몰아야 할 오염원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낙인을 찍는다.

또한 과도한 민족주의는 종종 인종주의와 경계가 불분명한데, 베트남인의 인종적 특징을 한국인과 비교하면서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베트남 관련 혐오 발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¹¹⁾. 이

10) 현재는 삭제된 채널이다.

11) “협한이고 자시고 △△ 베트남 필리핀 이런새끼들은 한국에선 그냥 인디언 취급인

러한 맥락에서 인종의 본질성과 태생적 속성이라는 인식에 기반하는 인종/민족주의는 생물학적 논리에 기반한 원초적 외국인 혐오의 외피를 둘러싼 투사적 혐오의 속성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혐오의 경우 그 기원은 인종이나 민족 개념을 혐오스러운 것과 연관 짓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는 그 본질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임의적, 선별적, 허구적 상상물이라 할 수 있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베트남(인)과 관련된 인종적 혐오의 양상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혹은 자민족 중심주의는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만 있는 것 같다. 이는 카스텔(Castells 2004)이 짚어냈듯이, 디지털 공간에서 민족주의가 완화되거나 소멸되기보다 더욱 강화 및 증폭되는 양상을 띠며 불협화음과 갈등이 난무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시일지도 모른다.

VI. 역사적 적대감

베트남과 베트남인에 대한 혐오가 지니는 또 다른 속성은 바로 베트남과 맺어온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한국(인)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적대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적대감은 우선적으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대한 이념적인 거부반응의 한 형태이며 베트남이 일본과 맺어왔던 우호적인 관계를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념적인 적대감의 경우 베트남을 중국, 북한과 같은 축에 놓고 ‘공산국가’, ‘빨갱이’, ‘베트콩’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을 통해 드러

데... (중략) 아마 내가 늙어 죽을때까지도 베트남 새끼들은 대등한 영장류로 보는 일은 절대 없을 듯”(디시인사이드 2022/10/25)

난다. 이러한 혐오의 표현은 ‘반중(反中)’과 ‘반북(反北)’ 경향이 두드러지는 소위 보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의 최대 규모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베트남 관련 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리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의 “싱글벙글 베트남의 한국인 폐병원 격리사건” 글에는 약 7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베트콩’, ‘공산당 빨갱이’, ‘멸공’ 등의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디시인사이드 2020/04/09).

- ① 베트콩에겐 네이팜탄+백린탄이나 던져줘야죠 고엽제는 덤으로다가
- ② 공산당 빨갱이 베트콩 중독
- ③ 베트남 애들보면 한국 엄청 싫어함ㅋㅋㅋㅋ 고구려도 중국 역사라고하고 다니고 한국전쟁 다시 일어나면 북한 확실하게 지원해서 남한 멸망시켜야된다고 주장하고 다님 자들은 일본 동경하고 중국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 대국 대접 해주는데 한국은 그냥 미국 식민지 취급하면서 엄청 깔보고 다닌다 ㅇㅇ

베트콩이라는 단어는 베트남 공산주의자 내지는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베트남의 공산 게릴라조직을 의미하는 비엠흥(Việt Cộng)에서 기인한 것으로,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이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불렀던 명칭이다. 오늘날에도 베트남(인)에 대한 멸칭(蔑稱)으로 ‘베트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인을 ‘공산주의자 월맹군’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드 콤플렉스의 전형인 ‘빨갱이’와 ‘멸공’이라는 단어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공

산화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베트남전 참전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역사·이념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 참전국과 피해국, 승전국과 패전국이라는 구분을 넘나들며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왔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베트남을 향한 역사적·이념적 혐오는 여전히 한국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반공주의의 산물로서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베트남(인)에 대해 반감과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베트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등장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일부 ‘혐한’ 글을 생산하는 베트남의 공격적인 네티즌에 대해서는 ‘일본이 배후에 있다’, ‘일본이 지시한 일이다’라는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였다. 일례로 “베트남은 일본에 붙어 한국에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모욕을 주었다. 베트남은 일본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2018년 2019년 일본의 베트남 투자가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일본과 모종의 협약이 없었다면 이정도까지 혐한을 정부가 조장할 이유가 없죠”와 같은 블로그 댓글들은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를 한국과의 대척점에서 바라보면서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혐오의 표현으로 일본과 베트남의 앞 글자를 따서 ‘일베’라고 일컫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네이버블로그 지큐 2020/04/08).

또한 특정 집단의 역사적 인식과 감각은 종종 현재적 담론과 실천에 의해 재현(再現) 또는 재구성되는데 이때 일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정보가 혐오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인 나무위키에는 코로나19 기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발생한 외교적 오해 및 논쟁과 관련하여 ‘혐한/베트남’ 항목이 존재한다(나무위키 혐한/베트남 2022). 혐한 역사를 설명하는 대목에

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뉴스 기사는 베트남 사람들의 역사 인식 속에서 혐한의 원인을 찾고 있다(박동휘 2020).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근거에 기인하기보다 기자 한 명의 주관적인 생각과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는 건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서지 한국을 존경하거나 좋아해서는 아니다. 1960년대까지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고, 베트남과 처지가 비슷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념을 분석해본다면, ‘질투’가 상단을 차지할 게 분명하다.”와 같이 불분명한 출처,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해당 기사는 베트남 혐한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혐베의 불길에 연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기사가 쓴 기사는 베트남 역사에 대한 무지와 오해, 기자 본인의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언론’을 표방하는 뉴스 기사가 또 다른 ‘혐오’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VII. 여성 혐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의 피해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압도적 1위로 여성을 꼽았다(최진호·이승선 2020).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남성 이용자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김수아 2015; 윤보라 외 2015). 이러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시기 증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는 이중·삼중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었다. 본문에서 주목하는 코로나19 시기 한-베 갈등의 여파로 발생한 베트남(인)을 향한 혐오 가운데

여성 혐오의 양상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에 대한 혐오는 확증편향과 집단극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아래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바인 미 사건과 아시아나 회항 사건 게시글에 달린 여성 혐오적 댓글이다(디시인사이드 2022/10/25).

- ① 동남아 관광가서 현지 어린년들 △△ △△△ 취급하듯 개같이 △△△△△ 따먹고, 동남아에서 외노자들 데려다 소, 돼지 부리듯 존나게 굴리는데 저정도면 싸게 막는거다.¹²⁾
- ② 닥쳐 △△△△들아 ㅋ 19살 베트남 처녀 만나러갈거니까 ㅋㅋ
- ③ 음 그럼 이 사태의 해답은 베트남 20살 여자랑 결혼하기인가..?!

위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혐오의 양상은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중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혐오는 일차적으로 한국 남성이 동남아 여성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성매매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적 대상화’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베트남 여성을 동시에 비하하고 멸시하는 효과를 빚어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앞서 분석한 혐오의 양상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에 가서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한국-베트남 간의 경제적 위계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동남아(인)라는 민족/인종적 위계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성별 권력에 기반하여 여성은 성을 파는 존재, 남성을 돈으로 성을 구매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12) 과도한 비방과 욕설은 비공개 처리하였다.

성별 위계 역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중 삼중으로 교차된 ‘중첩된 위계’ 속의 ‘중첩된 혐오’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혐오 발언에서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증오나 멸시 또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 이용, 착취 혹은 학대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경향은 ‘여성 혐오’의 전형이며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의 감정이나 주체성을 거부하면서 여성을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간주하는 극적인 ‘대상화’의 실천이다(Adams et al. 2006: 939; Nussbaum 2012; 김수아 2015: 283-4에서 재인용).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분쟁이 국가·지역·민족(인종)을 넘어 ‘여성 혐오’로까지 번지는 이 같은 현상은 베트남을 향한 한국의 혐오 현상이 이미 그 양과 범위를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한국의 성차별적 태도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아가씨’를 뜻하는 콩/꼴가이(con gái)는 동남아에서 성매매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베트남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단어를 의미한다.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국내에서 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중매업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결혼 절차 때문에 국내에서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많은 경우 매매혼과 동일시되어왔다. 이때 여성의 몸은 국가 혹은 가족에 의해 팔려 온 것으로 상정되며,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의 과정에서 ‘피해자’이자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왔다(김경민 2018; 이화선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 내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유사한 레퍼토리(젊고 아름다우며 순종적인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여성)를 통해 재생산과 강화되는 양상을 겪는다(권금상 2013). 이렇게 사회 내에 자리 잡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혐오의 자원이 된다. 다음(Daum) 아고라에서 이주여성 관련 담론을 분석한 한희정

(2016)은 이주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관음주의적 접근과 이들을 매춘과 연관시키며 수동적이고 성적 자율권을 발탁당한 존재로 간주하는 혐오의 양상을 밝혀내었다.

최근 남초 갤러리에서 ‘설거지론¹³⁾’ 다음으로 유행하고 있는 ‘베트남론’ 역시 여성 혐오의 일종인데, 혐오의 대상이 한국인 여성에서 베트남 여성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베트남론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처녀성’, ‘젊음’, ‘내조’를 획득하며 한국 여자의 결혼 조건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에 ‘설거지 결혼’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 남성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다문화가정의 복지혜택’을 얻을 수 있다. 베트남론은 콧대만 높고 요구 조건이 많으며 한국 남성이 원하는 성적 쾌락과 정서적 지원,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녀’를 비난하고, 혐오를 드러내는 동시에 베트남 여성을 ‘처녀’로 간주하고 더 젊고 아름다우며 남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집단으로 대상화한다. 한-베 양국 간의 서열화된 위계와 인종주의, 양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집적된 베트남론은 위에서 살펴본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여성 대신 베트남 여성’이라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차용함으로써 기존의 혐오의 양상과 성차별적 시각을 재생산,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시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혐오는 해당 국가와 문화에 대한 언론의 나태, 무지, 몰이해 혹은 자극적이고 고의적인 보도로 인해 더욱 증가, 확산, 강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본문에서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다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국가,

13) 불공평한 성별 관계에 기반한 결혼을 한 남성을 비난 또는 비하하는 말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 여성과 결혼한 순진한 남성이 타인이 먹고 남은 식기를 설거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결혼 전 자유로운 연애와 성관계를 즐긴 여성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 결혼하기를 선택하고 남성은 오로지 경제력만 제공할 뿐, 여성에게서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지 못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퐁퐁남’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 문화와 관련된 지칭하는 고유명사를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응우옌(Nguyễn)이나 베트남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인 쌀국수, 베트남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액젓인 느억맘(nước mắm)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베트남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성씨와 음식의 이름이지만 외국(인) 자체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외국인 혐오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본 장에서 분석한 혐오의 내용을 종합하여, 베트남 관련 혐오 표현의 유형과 특징, 사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1> 베트남 관련 혐오 표현 유형

구분		특징	사례
혐오의 유형	외국(인) 혐오	타 국가·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혐오 발언으로 삼는 경우	응우옌(Nguyễn), 쌀국수, 느억맘(nước mắm)
	민족·인종적 혐오	특정 집단을 불결, 오염,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대상화	퐁남아, 퐁트남, 바(베)퀴벌레
	역사·이념적 혐오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지칭	일베(일본+베트남), 빨갱이, 베트남콩
	성적 혐오	베트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표현	꼰/꽁가이, 베트남론

VIII. 결론 및 제언

앞서 살펴보았던 혐오의 여러 양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에 베트남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인식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경제적 위계에 의한 우월감, 과거 한베 양국

사이에 발생한 역사에 의해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던 적대감, 국내 베트남 이주자와 국경 밖 베트남을 향해 있었던 인종적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언론과 가짜뉴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 콘텐츠에 의해 (재)생산, 증폭, 강화, 확산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당시 언론 기사의 반응과 역할, 가짜뉴스 및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와의 상관관계, 베트남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콘텐츠에 달린 댓글 분석을 수행하고 그 연관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렇듯 악의적인 보도와 가짜뉴스에서 시작된 ‘혐베’는 양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베트남 주재 특파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과 한국인의 인식 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렸다. 바인 미 사태 당시 양국 국민(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전쟁’을 펼치긴 했지만 베트남에선 2월 말, 3월 초 “한국의 청년층이 ‘Apologize To VietNam(베트남에 사과하라)’ 캠페인에 참가하며 사과하고 베트남의 여론을 달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YTN의 보도를 비판하고 사과하거나, 사죄의 뜻으로 바인 미를 직접 만들거나 사 먹으며 극찬하는 영상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Lê Nam 2020).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된 후 베트남을 찾은 한국 외교 고위당국자들은 베트남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악의적인 보도와 가짜뉴스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 현지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사의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 중 하나로 꼽고 있음을 밝혔다. 당시 재임 중이던 박노완 전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최근 부임한 오영주 대사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2022년 10월 30일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이태원 관련 참사 뉴스 보도와 더불어 10월 31일 보배드림 등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베트남이 선넘는 코스프레로 이태원 참사와 사망자들을 조롱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에 기반해 11월 1일 조선일보와 위키트리도 각각 “이태원 참사 조롱? 베트남 핼러윈 코스프레 논란”, “이태원 참사 조롱?…베트남 핼러윈 코스프레 논란, 현지인들도 등 돌렸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보도들은 해당 코스프레가 이태원 참사를 조롱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논조로만 보도하여 읽는 이들에게 이 코스프레가 이태원 참사를 묘사한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김가연 2022; 한소원 2022). 베트남의 핼러윈 축제에서 대나무 돛자리를 덮고 죽은 척하는 코스프레가 이태원 참사 참사를 조롱한 것이란 언론의 주장은 다시금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확산됨으로써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혐베’를 다시금 촉발시켰다.

이후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은 해당 코스프레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신을 수습하기 전 우선 대나무 돛자리를 덮어 놓는 베트남 문화에서 기인한 코스프레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을 조롱한 것이 아님에도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정리나 2020d). 보도 직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주재 특파원단에 해당 코스프레는 시신을 임시로 수습하는 오랜 관행을 묘사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태원 사고와 전혀 무관하고 이를 어떻게든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대사관 측의 발 빠른 대응과 입장 표명은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초기 조선일보와 위키트리의 ‘무책임’한 보도 이후 수 시간 안에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

랐다.

여전히 일부 문제적인 보도 행태가 이루어졌지만, 이태원 참사 코스프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대사관이 나서 문제의 보도를 신속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경한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며 올바른 방향의 보도가 빠르게 이뤄졌고, 따라서 ‘다낭 바인 미 사건’ 때와는 달리 양국 네티즌 간의 거대한 ‘키보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대사관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보도 사안의 신빙성과 중대성도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측은 11월 1일 오전 상기 내용에 대해 베트남 주재 특파원단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다.

아울러 다낭 바인 미 사건과 아시아나 회항사건, 이후 가짜뉴스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 ‘혐베’에 대한 경계와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초기 보도 당시 역시 베트남을 향한 비방과 증오가 이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관계나 전후 사정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대사관 측의 공식적인 대응과 함께 어우러진 지적과 성찰의 목소리 덕분에 혐베를 조장하던 보배드림, FM코리아 등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역시 빠르게 삭제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시물에도 사실이 아니라 지적하는 댓글 등이 달리며 추가적인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이를 ‘몰이해와 비합리적 혐오의 증거’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가짜뉴스와 인터넷상의 혐오성 발언으로 인해 인터넷 포털 뉴스의 댓글 창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하였다(권김현영 2022).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온라인상의 모든 혐오를 예방, 차단, 근절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태원 코스프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혐오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일축하고 그것이 정부, 언론, 사회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시정, 개선,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엠케(2017)가 지적하듯 증오가 건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관찰한다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긴다. 배제와 고립의 형식들, 태도와 습관, 관행, 신념 등에서 나타나는 편협하고 야비한 따돌림의 수법과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의 일환으로서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혐오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단순 ‘받아쓰기’가 아닌 원인과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취재를 지향하는 언론의 노력은 혐오를 발생시키는 사회 내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차별 대신 자성으로, 혐오와 몰이해 대신 관심과 이해로 다름을 대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과 어우러질 때 ‘혐배’를 포함한 혐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진구. 2021. “팬데믹과 혐오: 베트남 관련 기사의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185-212.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권금상. 2013.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6(2): 39-81.
- 김경민. 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젠더화된 상상력과 실천: 하노이 한국 NGO의 신부교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4(2): 5-59.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279-317.
- 김중수. 2016.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44: 191-209.
- 김진리. 2020. “황화론의 재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프랑스 사회의 동양인 혐오.” 『다문화콘텐츠연구』 15: 37-49.
- 김수경. 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1): 22-43.
- 누스바움, 마사. 2015.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서울: 민음사.
- 마샬, 팀. 2020. 『장벽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장벽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병철 역. 바다출판사.
- 박기묵. 2015.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과 사례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4(3): 29-60.
- 손달임. 2020.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137-166.

손희정. 2018. “혐오 담론 7년.” 『문화과학』 93: 20-49.

윤보라·임옥희·전희진·시우·루인. 2015. 『여성 혐오가 어쨌다
구?』. 현실문화.

엠케, 카롤린. 2017. 『혐오사회』. 정지인 역. 다산초당.

외교부. 2022a. 보도자료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10.18.) 결과.” 10월
18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886&page=1 (검색일: 2023.01.20)

외교부. 2022b. 보도자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12
월 28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 (검색일: 2023.01.20)

이혜수·김세현. 2021.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의 혐오 담론: 구조
적 토착 모형을 활용한 언론보도기사 분석.” 『사회사상과
문화』 24(2): 261-296.

이화선. 2015.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한국융합인문학』 3(2): 7-24.

임양준. 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
식연구.” 『언론과학연구』 12(4): 419-456.

장려은. 2021.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혜진. 2020.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한
국 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https://hrcopinion.co.kr/archives/15221> (검색일 2022.01.10)

정두흠·박지혜. 2021.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유형분석: 허위조작정
보의 조작특징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4):
216-258.

정재선. 2021. “코로나 19 위협인식이 온라인 정보행동과 사회불신

- 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5(4): 83-104.
- 정채연. 2022.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론적 연구: 역사적 현상과 동인(動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7(1): 305-336.
- 정현숙. 200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3): 27-45.
- 조운용 · 임영호 · 허윤철. 2016.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 댓글의 속성과 이용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9: 165-195.
- 조태구. 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올드 노멀(old normal)’을 꿈꾸며.” 『인문학연구』 60: 7-36.
- 주재원. 2014. “다문화 담론 이면의 타자와 미디어 윤리:타자에 대한 윤리철학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10(4): 443-475.
- 최진호 · 이승선. 2020.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과 전문가 인식 조사.”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세미나 자료집.
- 카슬, 스티븐, 밀러, 마크 J. 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 표시영 · 정지영. 2021.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언론학보』 65(2): 286-329.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인포데믹 탐색하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6개국 조사.

- 한희정. 2016.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 43-79.
- KIEP 동향세미나. 2023.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 사상 최대 기록.” 1월 19일.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42087&mid=a302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 2023.01.20)
- Adams, T. M., and Fuller, D. B. 2006. “The word have changed but the ideology remains the same: Misogynistic lyrics in rap music.” *Journal of Black Studies* 36: 938-957.
- Allcott, Hunt, and Gentzkow, Matthew.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36.
- Castells, Manuel. 2004. *The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I. Blackwell: Oxford.
- Jack-Davies, Anita. 2020. “Coronavirus: The ‘yellow Peril’ Revisited.” *The Conversation*, August 3.
- Nussbaum, M. 2012. “Objectification and Internet Misogyny.” in Levmore, S. and Nussbaum, M. eds.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Person B, Sy F, Holton K, Govert B, Liang A. 2004. “Fear and stigma: the epidemic within the SARS outbreak,”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0(2): 358 - 63.
- WHO, UNICEF, IFRC. 2020. A guide to preventing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Covid-19.

신문 기사

- 권김현영. 2022.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 이제는 없애자.” 한겨레 12월 26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3221.html> (검색일 2023.01.10)
- 김가연. 2022. “이태원 참사 조롱? 베트남 핼러윈 코스프레 논란.” 조선일보 11월 1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11/01/YCRJ4XD5DBCIZLEIJSVJR2P4Q/ (검색일 2022.11.30)
- 박동휘. 2020. “‘박항서 효과’에 가려졌던 불편한 진실[박동휘의 베트남은 지금].” 한국경제 4월 11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22636?sid=104> (검색일 2022.11.30)
- 손가영. 2020. “YTN 공정방송위, ‘베트남 교민 감금’ 보도 ‘신중했어야.’” 미디어오늘 3월 11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90> (검색일 2022.11.30)
- 안윤학. 2020. “[단독] ‘다낭 격리’ 교민 20명...“자물쇠로 잠근 병동서 감금생활.” YTN 2월 25일.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51916087174 (검색일 2022.11.30)
- 오연서. 2020. “하노이행 한국인 50여명 공항에 격리...“없던 병도 걸리겠다.” 한겨레 2월 29일. <https://www.hani.co.kr/arti/PRINT/930410.html> (검색일 2022.11.20)
- 유승목. 2020. “‘한국인 오지마’...日·베트남·中, 해외여행 톱3도 ‘빚장.’” 머니투데이 3월 8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814372749577> (검색일 2022.11.30)
- 유진선. 2020. “코로나 사태 때 ‘코리아’ 무시하더니 ‘경제 폭망’하자 한국 기업에 매달리는 베트남 근황.” 인사이트 6월 15일. <https://www.insight.co.kr/news/289015#gsc.tab=0> (검색일 2022.

11.20)

- 이유지. 2020. “‘반미’ 대접했는데 빵쪼가리? 격리 한국인에게 빨난 베트남.” 한국일보 2월 26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613012194> (검색일 2022.11.20)
- 이한열. 2020. “[코로나19] ‘쌀덩크의 나라’ 베트남에 부는 험한 바람.” 에너지경제 3월 1일. <https://www.ekn.kr/web/view.php?key=484834> (검색일 2022.11.20)
- 장덕진. 2020. “생명 가치 넘어선 ‘위험의 정치화’..” 경향신문 2월 24일. <https://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02242043035#c2b> (검색일 2022.11.20)
- 정리나. 2020a. “‘한국인, 다낭 격리 거부할 거면 떠나라’…베트남 여론 빗발.” 아시아투데이 2월 25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225010014676> (검색일 2022.11.30)
- 정리나. 2020b. “[기자의눈] 베트남 바잉미와 순댓국.” 아시아투데이 3월 5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5010002998> (검색일 2022.11.30)
- 정리나. 2020c. “[기자의눈] 베트남에 험한은 없다.” 아시아투데이 5월 26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26010014004> (검색일 2022.11.30)
- 정리나. 2020d. “베트남이 이태원 참사 조롱? 도넘은 가짜뉴스와 혐오.” 아시아투데이 11월 1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101010000311> (검색일 2022.11.30)
- 정재호. 2020a.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베트남에서 고조되는 험한 기류.” 한국일보 2월 29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81791767524> (검색일 2022.11.30)
- 정재호. 2020b. “‘삼성 퇴출운동?’ 베트남, 한국發 가짜뉴스에 ‘어리둥절.’” 한국일보 5월 21일. <https://www.hankookilbo.com/Ne>

- ws/Read/202005191226084163 (검색일 2022.11.30)
- 정현영. 2020.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공항, 여름까지 ‘한국인 오지마!’.” 한국경제 3월 3일.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30326297> (검색일 2022.11.30)
- 전준강. 2020a. “‘코로나19는 ‘사우스 코로나’ 한국 조롱하는 베트남 사람들.” 인사이트 2월 27일. <https://www.insight.co.kr/news/270388> (검색일 2022.11.30)
- 전준강. 2020b. “코로나로 한국 조롱하더니 이재용의 삼성전자에게 손절 당한 베트남 현실.” 인사이트 5월 2일. <https://www.insight.co.kr/news/281879#gsc.tab=0> (검색일 2022. 11.20)
- 한소원. 2022. “이태원 참사 조롱?...베트남 헬리원 코스프레 논란, 현지인들도 등 돌렸다.” 위키트리 11월 1일.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02544> (검색일 2022.11.30)
- D. Ngọc. 2020. “Từ 21 giờ hôm nay 26-2, hành khách Việt về từ Hàn Quốc phải cách ly tập trung 14 ngày.” NGƯỜI LAO ĐỘNG 2월 26일. <https://nld.com.vn/thoi-su/tu-21-gio-hom-nay-26-2-hanh-khach-viet-ve-tu-han-quoc-phai-cach-ly-tap-trung-14-ngay-20200226183711471.htm> (검색일 2022.11.30)
- Kang, Taeyoung. 2022. “[서울신문×언더스코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사회일까?”” <https://minvv23.notion.site/68a578a6953d4cf5ae4cec15aa5618f7> (검색일 2022.11.20)
- Lê Nam. 2020. “Giới trẻ Hàn Quốc và làn sóng ‘Apologize To Vietnam’ đổ bộ YouTube Việt.” THANH NIÊN 2월 29일. <https://thanh-nien.vn/gioi-tre-han-quoc-va-lan-song-apologize-to-vietnam-d-o-bo-youtube-viet-post930234.html> (검색일 2022. 11.30)
- Nguyễn Đông. 2020. “Nhóm khách Hàn Quốc không muốn vào khu cách ly.” VNEXPRESS 2월 24일. <https://vnexpress.net/nhom>

-khach-han-quoc-khong-muon-vao-khu-cach-ly-4059755.html
(검색일 2022.11.30)

Trần Nguyên. 2020. “Việt Nam phối hợp chặt chẽ với WHO thông tin về bệnh viêm phổi lạ.” NHÂN DÂN 1월 21일. <https://nhandan.vn/viet-nam-phoi-hop-chat-che-voi-who-thong-tin-ve-be-nh-viem-phoi-la-post447823.html> (검색일 2022. 11.30)

인터넷 자료

HI! MR.SUNG 2020/04/02. “알수록 요상한 베트남 섬짓한 이유, 이 정도 일 줄은 흡사 중국 일본 쉬어 놓은 듯”
<https://www.youtube.com/watch?v=EQIwPzF1moA> (검색일 2022.11.30)

MTN 머니투데이 방송 2020/03/10. “[여의도튜브] “부탁해도 부족한데” 베트남 무모한 결정 삼성 “기가막혀” <https://www.youtube.com/watch?v=7oE2djWRzVc> (검색일 2022.11.30)

MTN 머니투데이 방송 2020/03/22. “[여의도튜브] 베트남? 차라리... 한국사람들 ‘확바뀐’ 해외여행지 플랜” <https://www.youtube.com/watch?v=6dfwqw-6944&t=100s> (검색일 2022.11.30.)

가생이닷컴 2020/02/27. 베트남 감금사건 관련 타임라인 팩트체크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1346078 (검색일 2022.11.30)

나무위키 험한/베트남 2022/12/28. <https://namu.wiki/w/%ED%98%90%ED%95%9C/%EB%B2%A0%ED%8A%B8%EB%82%A8>
(검색일 2022.11.30)

네이버 블로그 지큐 2020/04/08. “베트남 험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요?” <https://m.blog.naver.com/d2rksider>

/221897712790 (검색일 2022.11.30)

네이버 베트남호치민일상탈출 카페 2020/04/05. “베트남의 한국 불매운동?!” <https://cafe.naver.com/vietnamnightking/112352> (검색일 2022.11.30)

디시인사이드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2022/10/25. “싱글벙글 베트남의 한국인 폐병원 격리 사건”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87123> (검색일 2022.11.30)

보배드림 커뮤니티 2020/04/09. “한국 불매운동 하겠다는 베트남인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04595/2/12?keyword=%EB%B2%A0%ED%8A%B8%EB%82%A8&s_cate=Subject (검색일 2022.11.30)

시사멘터리 2020/03/23. “베트남이 한국에 키트를 달라며 하는 놀라운 행동” <https://www.youtube.com/watch?v=1WIFeJAmL2E> (검색일 2022.11.30)

진포터 2021/11/17. “첫 지하철 개통에 난리난 베트남이 한국 지하철 영상보고 현실부정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OFwXHTGr1wU> (검색일 2022.11.30)

(2023.01.14. 투고, 2023.01.17. 심사, 2023.02.13. 게재확정)

<Abstract>

**The Korean-Vietnamese Conflict and Hatred
During the COVID-19 Period Through the Media -
Focusing on the Bánh Mì Incident and the Asiana
Airlines Flight Return Incident**

Kyungmin, K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ina, JUNG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the quarantine of passengers on a flight from Daegu to Da Nang (also known as the Bánh mì incident) and the return of the Asiana flight were two cases that negatively affected Korea-Vietnam diplomatic relations, especially the social perception of Vietnam. Focusing on these two incidents, this paper examin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media and the method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consider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producing, spreading, and reinforcing hatred through debates in the online space and the mass production of fake news.

The contents of the article are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xenophobia and the media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is thesis. Chapter 3 examines Vietnam's quarantine

measures during the COVID-19 era, which is the background to the diplomatic conflicts. Chapter 4 describes the detailed context of the two incidents and the response or reaction of the media and press. Chapter 5 analyse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anti-Vietnamese hatred expressed through the press and media.

The Da Nang Bánh mì and the Asiana flight return incident, mediated by indiscriminate or malicious media reports and fake news from YouTube and online communities, triggered hatred that had been on one side of Koreans' perception of Vietnam. The analysis of the hatred in the media revealed that it included a sense of superiority due to the economic hierarchy of Korea(n), implicit hostility due to the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ethnic/racial prejudice, and sexist attitudes (misogyny).

Finally, we will look at ways to prevent the reproduction and spread of hate through the recent case of “Itaewon disaster cosplay”. The incident is a positive example that show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government, media and society, as voices of caution against cultural ignorance of the other country and fake news, and active response at the embassy level, prevented the spread of further “keyboard war” and “hate”.

Key Words: Covid19, media, news press, fake news, vitamin, hatred, Bánh mì incident

